



ISSUE PAPER

「 日 상반기 방송콘텐츠산업 동향 」

○ 작성 취지

- 일본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방송매체는 모든 대중문화의 발원지**이자 '메가폰'과 같은 존재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금년 상반기 일본 **방송콘텐츠산업**을 이슈별로 점검함으로써 최근 변화의 흐름을 이해하고 일본진출 전략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출처 : 총무성 보도자료, 닛케이엔터테인먼트 2010.5, 2010.6, 2010.8, 민간방송 5.23일자 7.3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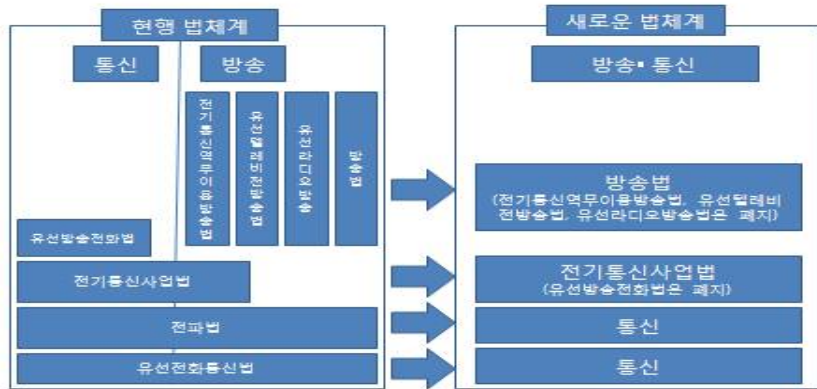
○ 작성 순서

1. 「방송분야별 이슈동향」
 - ☞ 제도 및 정책, 방송사 경영, 방송트렌드, 방송콘텐츠제작 동향
2. 「시사점」

1. 「방송분야별 이슈동향」

□ 「제도 및 정책동향」

- 총무성은 지난 3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방송을 '기간방송'과 '일반방송'으로 구분설정
 - ☞ 기간방송이란 방송 전용 또는 우선적으로 할당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
 - 기간방송에 대해 무선국의 '면허'와 방송업무의 '인정(認定)'으로 절차를 구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무선국 설치·운용(하드) 및 방송업무(소프트) 일치를 희망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위해 '면허'만으로 가능한 현행제도도 병존
 - 일반방송에 해당하는 케이블TV, 유선라디오방송 및 전기통신역무이용 방송에 대해 '허가', '등록'등으로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등록'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로 통합
 - 기간방송에 대해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의 기본적인 부분을 법제화 하고 복수 기간방송사업자로의 출자에 대해 일정 범위내(1/10~1β)에서 구체적으로 성령(省令)에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
 - 그밖에 주요내용으로는 방송의 안전·신뢰성 확보(설비유지, 중대사고시 보고규정정비 등), 방송프로그램의 종류별 공표, 유료기간방송의 약관 인가 신고제 전환 및 유료일반방송의 약관신고 철폐, 재방송동의관련 분쟁처리시의 알선 중재제도의 정비 등
 - 이번 개정안은 60년 만에 현행 방송관련 4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현행 법률체계를 바꾸는 의미를 가짐



○ 총무성 2010년 1월 '제4차 지상파방송 디지털 전환 종합정책' 발표

- 필요한 정보를 철저하게 제공, 수신대책, 송신대책, 아날로그 방송중단 이후의 대책을 명시
- 방송을 통한 홍보, 설명회 개최 및 호별방문, 지방공공단체 등과의 연대, 국민운동의 전개 등
- **에코포인트**를 활용한 디지털TV의 보급촉진, 일부 아날로그TV 수신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간이 튜너 유통 촉진, 빈곤층에 대한 수신기기 구입 등의 지원, 산간벽지 및 도서, 수신 장애, 집합주택 공청시설의 디지털전환 촉진,
- ※ 에코포인트란 2010년까지 에너지절약효과가 높은 디지털TV 등의 가전기기를 구입할 경우 **일정한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포인트로 경제산업성에서 추진**
- 중계국 정비의 촉진, 디지털 난시청 대책, 디지털 혼신 대책, 케이블 TV 및 IP재송신 등의 활용을 통한 디지털전환 촉진
- 아날로그 방송중단계획수립, 아날로그방송 중단 리허설 실시, 아날로그 수신기의 리사이클 대책, 정부 차원의 추진체제 수립, 아날로그 중단이후 채널변환 지원 등

□ 「방송사 경영」

- '09년도('09.4~'10.3) 지상파 민간방송국(194사)의 총 매출액은 2조2,443억엔을 기록, **전년도 대비 7.8% 감소**해 경영환경은 악화일로

- 7.8%는 과거 최대 하락폭이며 4년 연속 수익감소, '07년도 0.9%, '08년도 5.2% 감소
- 경영손익은 큰 폭의 경비절감에 성공해 전년대비 13.4%가 증가한 730억엔을 기록
- 그러나 지역방송국을 중심으로 지상파방송의 약 40%가 적자를 기록
- 한편 도쿄의 Key Station 5국의 2009년도 경영실적은 전년대비 9.8%가 감소한 1조1,068억엔을 기록

[도쿄 Key Station 5국의 2009년도 결산]

No.	방송국	매출액	경상이익	당기 순이익
1	TBS	217,919(-20.1)	-2,355(-)	-3,678(-)
2	니혼TV	261,060(-6.0)	25,116(113.8)	14,443(345.1)
3	TV아사히	206,723(-6.4)	6,647(842.8)	2,340(-)
4	후지TV	327,359(-5.9)	10,224(54.3)	6,392(-32.2)
5	TV도쿄	93,765(-12.8)	1,476(1,505.1)	1,658(-)

* 단위: 백만엔, ()안은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 경상이익은 프로그램제작비 등의 경비절감 결과, **니혼TV, TV아사히, TV도쿄** 3사가 큰 폭의 수익증가를 보였고 **후지TV는 50%이상의 수익감소, TBS는 적자**를 기록
- 당기순이익은 니혼TV가 수익증가, TV아사히와 TV도쿄가 흑자 전환, TBS는 전년도에 이어 적자, 후지TV는 순이익감소를 보임.
- 불황으로 기업의 광고지출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임광고(프로그램 광고)수입이 5국 모두 두자리 수 감소를 보였음.
- 한편 **NHK는 수신료 수입의 증가**로 사업수입이 6,699억엔을 기록해 4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

□ 「방송트렌디 동향」

- 상반기 방송콘텐츠의 인기트렌드를 주도한 것은 NHK대하드라마 '료마전'과 여성 아이돌그룹 'AKB48'임

주목 콘텐츠① : 「료마전」

- NHK 대하드라마 '료마전(龍馬傳)'(매주 일요일 20:00~20:45)이 2010년 상반기 드라마 시청률 1위를 기록



<NHK의 대하드라마 '료마전' 선전포스터>

- '료마전'은 막부말기의 무사출신으로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유신에 영향을 준 **사카모토 료마(1865~1867)**를 그리고 있는 역사드라마로, 최고시청률은 24.4%를 기록
- 인기 가수 겸 배우인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대하드라마 첫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메이지유신의 기초를 세운 '사카모토 료마'를 연기했다는 화제성, 후쿠야마를 비롯한 출연배우의 뛰어난 연기력 등이 남성팬 뿐만 아니라 여성시청자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
- ※ 2009년부터 아이돌 출신 등의 '꽃미남'들이 대하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여성시청자들이 역사등 대하드라마를 좋아하는 '역녀'(歴史女:역사물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여성층)붐이 일고 있음
- 2위는 인기그룹 SMAP의 '키무라 타쿠야'가 주연을 맡은 '달의 연인'(최고 시청률 22.4%), 3위는 후지TV개국 50주년 기념 특집드라마 '우리집의 역사'(최고시청률 21.2%)가 차지

[2010년 상반기 드라마최고시청률 TOP10]

순위	작품명	방송국	최고시청률
1	대하드라마 료마전	NHK	24.4%
2	달의 연인	후지TV	22.4%
3	특집드라마 우리집의 역사	후지TV	21.2%
4	신참자	TBS	21.0%
5	계게계 여보	NHK	20.5%
6	아이보 시즌 8	TV아사히	20.4%
7	특집드라마 최후의 약속	후지TV	19.4%
8	코드 블루 닥터 해리 긴급구명 시즌 2	후지TV	18.8%
9	꺾이지 않는 여자	니혼TV	18.6%
9	임장(臨場)	TV아사히	18.6%

*출처: 주식회사 비디오리서치 조사결과

- 금년 상반기 경향은 역사, 의료, 형사물이 우세한 가운데, 본격적인 러브 스토리 및 코미디 작품까지 다양한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출처: 야후 뉴스 7월 10일자).
- 'NHK대하드라마 스토리 료마전 전편'이 오리콘의 2010년 상반기 TV프로그램 관련 서적부문에서 1위를 차지
- 'NHK대하드라마 스토리 료마전 후편'(NHK출판협회, 6월 30일 발매)도 5만 5천부가 판매되어 주간TV프로그램관련서적부문 1위를 차지했으며 종합부문랭킹에서도 3위를 기록
- '후쿠야마 마사하루 : 사카모토 료마 사진집'(고단샤(7월 1일 발매))도 2만 3천부를 판매해 사진집 부문 1위를 차지
 - ☞ 사진집에는 메이크업 장면 등 제작현장 및 방송되지 않은 컷장면 등이 수록되어 있음
- 시바 료타로의 롱 베스트 셀러인 '료마가 간다 1(신장판)'의 문고판(문예춘추('98년 발매))도 방송개시 후 서적랭킹에 상위권에 진입하기도 했음

주목 콘텐츠② : 「AKB48」

- 2005년 탄생한 **20세 이하 48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아이돌그룹 'AKB48'**이 작년부터 크게 인기 끌고 있으며, 과거 최다멤버로 구성된 아이돌그룹
- AKB48의 인기는 아이돌그룹의 오랜 부진을 딛고 "슈퍼걸 그룹 시대의 화려한 부활"로 평가
- 이전의 아이돌과는 달리 아이돌성과 노래 및 댄스에 골고루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전 아이돌은 비주얼과 캐릭터 중심이 대세

- 공연은 도쿄 아키하바라 전용극장에서 '팀A', '팀K', '팀B'가 번갈아 가며 AKB48극장에서 매일 공연
- 3월 발매된 '사쿠라노 시오리'(38만장, 오리콘 상반기 랭킹 싱글 5위)가 처음으로 오리콘 1위를 기록, 5월 26일 발매된 '포니테일과 슈슈' 57.7만장 돌파(상동 랭킹 싱글 3위), 앨범 '신곡(神曲)다치' 37만 9천장으로 오리콘 상반기 앨범부문 6위를 기록
- AKB48의 전국공연 제 1탄으로 2008년에 SKE48 결성, 나고야를 중심으로 공연활동, SDN48은 AKB48를 졸업한 멤버를 포함한 37명의 그룹으로 멤버 전원이 20세 이상으로 매주 토요일 AKB48극장에서 공연.
- "반에서 4~5번째 귀여운 여학생을 한꺼번에 대량 프로듀스하고 소비자는 그들의 꾸밈없는 리얼리티를 소비하며, 멤버는 끊임없이 교체되고 그런 도태속에서 성장해나가는 아이들의 인생과 삶이 팬을 끌어들이다"(우노 쓰네히로 비평가)

AKB48의 히트요인

- AKB48의 콘셉은 "깊숙이 파고드는 진한 콘텐츠"임. 이를 위해 매일 공연하는 '만나러 갈 수 있는 아이들'을 지향. 매너어팬 확보위해 공연과 같은 라이브적인 요소를 도입
 - ↳ 공연 첫날 7명으로 시작, 지금은 연일 만원
- 팬이 프로듀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팬 인기투표로 상위 21명이 다음번 싱글에 참여 ('AKB48총선거')
 - ※ 출처 : 월간 'DIME' 13호



<TV아사히의 버라이어티 시사프로그램 :
그랬었던가 이케가미 아키라의 배울 수 있는 뉴스 >

□ 「방송콘텐츠제작 동향」

- '아바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등 3D영화가 대히트와 더불어 파나소닉, 소니등 가전업체가 3D TV를 내놓으면서 TV업계에서도 3D콘텐츠 제작 붐이 일어남
- 케이블TV인 J:COM은 4월부터 VOD방식으로 3D영화(전율미궁 3D) 서비스 개시, 전용안경을 쓰고 '올인' 시청하는 행태 VOD시청과 호홉이 맞았으며, 비즈니스보다 VOD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모션 수단으로 활용
- CS채널인 '후지테레비NEXT'가 처음으로 3D프로그램의 방송을 개시, 최소 매월 1편 이상 3D콘텐츠 방송예정임
- CS방송인 '스카파'에서는 6월에 3D전문채널로 월드컵 축구를 중계, 월드컵 축구 경기 25시합을 3D로 방송
- TBS는 작년말에 프로복싱을 3D로 촬영해 DVD로 발매했고, 'THE 세계 유산'(매주 일요일 18시 방송)팀이 일본 '야쿠시마'를 3D촬영
 - ※ TBS는 2월에 3D개발콘텐츠프로젝트팀을 설치해 사내 모든 3D콘텐츠관련동향에 대해 긴밀하게 정보교환하고 있음
- NHK는 '여러분의 노래' 방송개시 45주년을 기념해 '그라스호퍼&넛포상'을 3D로 제작, NHK미디어테크놀로지는 4월에 일본에서 최초로 3D용 중계차를 제작, NHK기술연구소는 안경없이 자연스런 입체영상을 볼 수 있는 입체TV를 개발중임
- CS 및 케이블TV 등의 유료방송을 중심으로 3D콘텐츠가 확대될 전망

주목 콘텐츠③ : 「그랬었던가 이케가미 아키라의 배울 수 있는 뉴스」

- 버라이어티 부문에서 인기를 끈 것은 "그랬었던가! 이케가미 아키라의 배울 수 있는 뉴스"(TV아사히)
- 정중하고 알기쉬운 해설로 이케가미씨의 지명도와 호감도가 상승해 일약 주목받는 유명인사가 됨. 그 이후 이케가미씨 관련 서적이 잇따라 베스트 셀러를 기록

[지상파방송국의 3D콘텐츠 대응]

방송국	내용
NHK	· 아직 방송 예정은 없지만, 관련단체로 제작 및 연구를 하고 있다. · 5월 27일~30일 눈으로 3D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NHK기술연구소 이벤트에서 공개
니혼TV	· 작년 11월에 아라시출연 특집에서 3D영상을 방송. 금년 3월에 개최한 기술전시회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전시하는 등 준비 중
TV아사히	· 회사내부에 횡단적인 프로젝트를 설치하고 검토중. 축구 및 프로레슬링 등 각종 스포츠를 실험녹화하는 등 제작 노하우를 축적
TV도쿄	·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 금년 1월 개봉된 극장용 애니메이션 '극장판 유희왕~조용함!시공을 초월한 유대~'는 3D로 상영

2. 『시사점』

- 방송·통신 컨버전스시대를 맞아해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송법 정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1년 7월 원활한 **아날로그 방송중단과 디지털방송 전환을 대비해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음
-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가 바닥을 치고 거시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금년 하반기는 광고수입이 다소 늘어날 전망이지만, 3개월~1년의 장기계약을 맺는 타임광고수입 감소가 계속되고 있어 **일본방송사의 경영환경은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전망임
 - ☞ 프로그램 제작비 절감에 따른 콘텐츠 제작위축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으로, 한류 드라마 등 해외드라마의 노출기회는 줄어들지 않을 전망임
- 하반기에도 역사, 의사, 형사드라마의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나 여름드라마에 러브스토리, 학원물 등이 다수 포진되어 있어 새로운 드라마 흐름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고시청률 획득을 위한 인기 아이돌그룹의 멤버들 또한 적극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제작 참여시킬 것으로 보임
 - ☞ AKB48의 인기는 아이돌 걸그룹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를 환기시켜 하반기 대거 진출하는 한국의 걸그룹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지상파TV는 모두 현단계에서 3D콘텐츠의 방송에 신중한 입장으로 **당분간 유료방송 등을 중심으로 조금씩 확대될** 전망임